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6. 1+2
Vol. 182

2016 Happy New Years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아이들의 오늘 그리고 내일...

DAIL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의 씨앗을...

추위 속에 피어나는 매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이면 소외된 이웃들의 몸과 마음은 더욱더 시리고 아리어 옵니다. 엄동설한 속에 피어나는 매화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다시 한 번 일어서는 희망의 다일이 되고 싶습니다.

돌아보니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온몸으로 전하여지는 한 해였습니다. 4월 25일 있었던 네팔의 대지진으로 긴급구호를 다녀오고 나니 국은 메르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불안에 싸여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다일을 사랑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물질로써 나눔과 섬김의 봉사로 격려와 위로로 함께해주신 후원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잘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27년 전 청량리역 광장 임시 매표소 옆에서 라면을 끓여먹을 때 오늘의 모습을 어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소망의 씨앗을 심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몇몇의 동역자들과 함께 외롭고 힘에 겨운 날이 많았지만 이제는 든든히 다일의 사역을 뒷받침하여 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더욱더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일의 역할은 세계 빈민촌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고자 합니다. 이른바 "꿈피"입니다. 우리의 세대는 직접 볼 수 없다 해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열리는 열매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그릇의 설렁탕을 대접한 다일이 750만 그릇을 넘는 사랑의 나눔이 되었고 47만 5천원의 성금 그것도 손가락질 당하던 청량리 뒷골목의 인생이 모아준 헌금이 천사병원을 모으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보내온 S형제의 영치금이 심장병 어린이 르은이를 살리는 수천만 원의 후원의 첫 걸음이 되듯이 다시 열매를 바라며 한분 한분이 사랑의 씨앗을 2016년 한해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은 형제, **천**인드볼림

CONTENTS

02	어린이에게 보내는 편지	14	봉사이야기
04	폼다일, 일대일 아동결연의 밤	19	다지증 쏘페악 변화 그 후
06	365척의 기적	20	다일의 국내외 현장이야기
08	해외분원레시파-네팔편	30	기부금 영수증
10	성탄이야기	31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32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c.o.v.e.e.r.s.t.o.r.y

후원회원님들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아이들은 깨끗한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생각으로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쏘타이에게

다일공동체 아동결연의 밤에 초대되어 영상편지로 너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던지... 꿈꾸던 대학입학 소식을 전하며 환하게 웃음 짓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고 기뻐서 눈물이 났어.

쏘타이, 사실 나어겐 오랫동안 꿈이 없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대 초반에 선교의 꿈, 선교지에서 살고 싶다!
라는 꿈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보내주셨고,
단기선교 마지막 날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했다가 쏘타이 너를
알게 되어 나의 아들로 아동결연을 맺게 되었어. 이렇게 우리 둘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단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청량리에 있는 밥떠를 찾아가기도 했었어.
사진뿐만 아니라, 편지로,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만났던 너를 직접 만나
게 된다면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단다.

나의 아들, 쏘타이에게 엔지니어라는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날마다 더해지고,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쏘타이의 삶이 되길
기도할거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해!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며 응원할게!

쏘타이의 아동결연 후원회원 | 장미득



쏘타이는 후원회원님의 아동결연 후원을 통하여
올해 기계설비학과 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무나에게

네딸의 다일공동체에서 남루한 옷으로는 가릴 수 없을 만큼 반짝이는 예쁜 눈동자를 가진 어린 천사들과 함께 무나를 만난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가네...

언니, 누나들의 품에 안겨온 어린아이들부터 자못 어른 티가 나는 소년, 소녀들까지 백 명이 넘는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무나를 눈여겨보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다른 아이들을 돕는 무나의 침착한 표정은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러웠고 스텝들과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는 모습은 네딸 밥터 봉사활동을 한지 둘째 날이 되던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동안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매년 선교를 겸한 의료봉사를 하면서 빈민촌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칠 수 있는 봉사팀을 조금씩 모아가며 사역의 규모를 넓히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갈 때라 처음에는 무나를 그저 먹이고 가르치고 싶은 아이로 만났지.

그런데 올해 초 기대했던 대로 10학년을 잘 통과하고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준 무나의 편지를 받고 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무나의 꿈에 감동하면서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무나와 내 꿈을 함께 이룰 동료로서 무나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

무나... 낮고 낮은 곳에서 세상을 향한 높은 꿈을 꾸게 하시고 감동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기를 바란다. 조만간 네딸이든 한국이든 무나를 직접 만나서 서로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늘 기도하는 딸이 되렴... 사랑한다!



무나타미의 아동결연 후원회원 | 이 경 희

무나는 후원회원님의 아동결연 후원을 통하여 10학년을 마치고 의사가 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 어린이를 품을 때,
어린이는 가난속에서도 이결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추운 겨울,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포근한 온기가 생각나 설레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어머니의 따스한 품에 안겨 굳히 잡든 아이의 모습만 보아도 미소가 지어지는데,
아이가 건강하고 멋지게 자라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느껴질까요?

2015년 11월 11일 '아동결연의 밤'에 해외의 다일공동체 아동들이 기다리던 후원회원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나눔의 열기가 가득했던 아동결연의 밤,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 생명을 품다! (폼다일:1)

아동결연후원의 밤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8층 문화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아동결연의 밤은 다일공동체 해외분원의 아동들과 결연을 맺어주신 후원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졌는데요, 기쁨이 있는 교회의 R45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조지훈 목사님의 은혜 가득한 설교에 감동이 더욱 넘쳐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신 이사야 46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 이미 아시고 품으신 한 생명을 우리도 품기 위해 모인 이날의 행사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인 듯 한없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후원회원님과 아동과의 만남

다일공동체 일대일아동결연으로 캄보디아에서 최초로 대학에 입학하게 된 쏘타이!

지금까지 쏘타이를 결연으로 품어주신 후원회원을 위한 감사패 전달과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쏘타이의 깜짝 영상편지가 공개되자 후원회원님과 결연의 밤에 참석한 모든 후원회원님들의 눈시울이 감동으로 붉어졌습니다.

한 생명을 가슴에 품으며...

CCM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찬양사역자 강찬 전도사님의 찬양이 시작되면서 모든 관객이 입장할 때 선물로 받은 손수건을 펼쳐자 그 안에 담겨있던 사진 속 아동들과 관객이 눈을 마주합니다. 각자 아이의 이름을 불



>> COM천양시역자 강찬 전도사님



>>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님



>> 최일도목사님, 박상원, 윤석화 홍보대사님

“ 품다일 한 생명을 품는다는 것 ”



>> 다일 해외분원장님들의 특송



>> 후원회원님께 보내는 아동의 깜짝 영상편지

러가며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의 기도로 한 생명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각국의 사명실현지에서 후원회원님이 결연한 아동들을 직접 돌보고 계신 다일의 해외분원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전통의상을 입고 특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를 찬양하며 부르신 어느 곳에서나 사명을 다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든직하고 감사드립니다!

결연의 밤에 함께한 다일의 홍보대사님들

아동결연을 맺고 탄자니아 비전트립을 다녀오신 윤석화 홍보대사님과 중국 다일공동체에 도서관을 설립해 주신 박상원 홍보대사님의 간증과 소감은 마치 현장에서 결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

을 주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거의 대부분의 게스트들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 우간다의 어린이들과 일대일 아동결연을 맺으셨는데 오늘 감동 받으신 박상원 홍보대사님은 연말까지 100명의 후원자들이 아동을 품게 하겠다고 공약을 펼쳐주셨습니다! 역시 다일의 홍보대사님이십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한 아이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주신 후원회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대일 해외아동결연 문의

02-2212-8004 / dail.org

다일공동체 후원관리실



캄보디아 365척의 기적

배 지원 감사축제를 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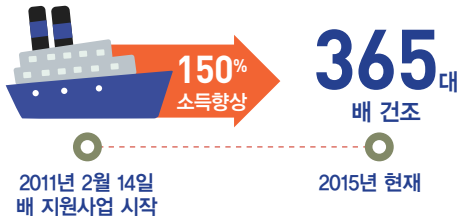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신진오 간사

캄보디아 시업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앙코르 왓트'라는 유적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농업과 어업의 기반이 되는 톤레삽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왕국이 가장 번성했던 앙코르 시대(9-15세기)부터 톤레삽은 왕국의 힘을 유지하는 가장 큰 자원이었고 현재까지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중순에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행사인 물축제가 열립니다. 이는 오래 전 캄보디아 황제인 자야바르만 7세가 참족과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캄보디아인들은 배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고대 국가에서부터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캄보디아에서 배는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배의 중요성은 수상마을에서 더 극대화됩니다. 수상마을의 삶은 일반적인 어업과는 달리 하루 24시간을 물 위에서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강은 삶의 터전이고 곧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톤레삽에는 자신의 토지를 갖지 못한 캄보디아 사람들과 베트남에서 이주한 베트남 사람들이 물 위에 수상가옥을 짓거나 배를 집 삼아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새벽 동이 뜨기도 전에 일을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에 의존한 채 배를 끌고 나가서 조업을 하고, 동이 틀 무렵 수산시장에서 잡은 어획물을 팔고, 또 아침에는 그물을 손질하며 내일 일을 준비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가족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상마을 사람들. 그런 그들이지만, 배가 없다면 그나마의 일조차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취학증진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KOICA와 협력하여 2011년 2월 14일부터 쯡크니어 지역에서 배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현재 까지 약 365척의 배를 건조하였으며 그들의 소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보다 150%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성과를 보았기에 이제는 쯡크니어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까지 배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배 지원 감사축제는 이러한 365대의 배 지원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으며 쯡크니어마을에서 시작한 배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역사상 처음으로 수상에서 진행되는 축제였기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텝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축제를 위한 준비가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원받은 배를 타고 오는 수혜자들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노를 저어서 오거나 여러 대의 배를 하나의 모터 보트에 연결하여 끌고 오는 장면들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배들과 면장님과 7개 마을 이장님들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도 없이 뜨거운 태양아래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수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 지원 감사축제는 수혜자들이 타고 온 배가 떠나려가거나 큰 배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물결로 뒤집히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뜬레상에 위치한 다일 수상유치원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일도 이사장님의 축사로 행사는 시작되었고 마을대표인 이장님이 답사와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지난 365척의 배 지원으로 쯡크니어면에는 배 수혜가 충분

히 공급되어 다른 마을의 지원도 부탁하였습니다. 수혜자 대표는 배를 지원받기 이전의 궁핍했던 생활을 떠올려보면 현재의 삶에 감사가 더해진다고 고백하며 배를 지원받게 되면서 삶이 바뀌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에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감사하다며 눈물짓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산명성교회에서 후원해주신 배들을 이장님이 추천해주신 각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배를 받으며 희망을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어보이는 그들의 미소가 다른 아들 또한 미소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기쁨으로 풍성했던 365 배 지원 감사축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선물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축제의 모든 과정과 끝을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축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신 동역자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오늘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새로운 지역을 찾아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D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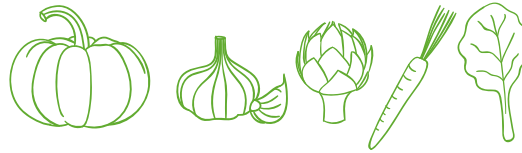
>> 감사축제에 참여한 수혜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모습



NEPAL

밥퍼를 부탁해 네팔편

네팔 다일공동체 밥퍼는 2008년 네팔 최대 빈민가인 마누하르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퍼에서의 식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제대로 발육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팔 다일공동체에서 밥퍼를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의 키가 크고, 많은 병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일공동체 밥퍼는 보통 점심 배식을 하는데 네팔은 특성상 아침밥을 준비해서 밥퍼를 진행합니다.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비전 센터에 모인 아이들은 먼저 찬양과 말씀으로 서로 축복을 나누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진지기도를 드리고 3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밥을 먹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동생들을 언니, 오빠들이 하나, 둘씩 안거나 업고 와서 밥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 눈물겹기도 합니다. 네팔의 밥퍼에서는 배고픈 아이들이 밥을 더 달라고 하면 배가 가득 부를 때까지 무상급식을 진행합니다.

행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네팔 다일공동체에서 성장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밥퍼 배식부터 어린 유아들이 밥을 먹는 일, 뒷정리까지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봉사하는 아이들 중에는 10학년 까지 공부를 마치고 +2 college 과정을 합격한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팔 빈민촌의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꿈을 가지고 자라게 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배식을 위해서 보통 200달러가 필요한데 이 비용이면 350여 명의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고, 한 아동의 3만원 아동결연 후원이면 아동이 매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고 깨끗한 얼굴로 말쑥하게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매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감격합니다. 네팔의 밥퍼와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da:il**

$$200_{\text{달러}} = \text{아이} \times 350_{\text{명}} \text{ 하루 배식 가능}$$



네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한국에서도 재료를 구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뉴

네팔 닭볶음

재료 : 닭고기, 양파, 마늘, 생강, 고추, 토마토, 식용유, 소금, 강황, 머슬라



1. 신선한 닭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한다.



2. 양파, 생강, 마늘을 기름에 볶는다.



3. 완성된 야채에 강황을 넣고 함께 볶는다.



4. 닭고기에 볶은 양파, 생강, 마늘과 소금을 넣어서 익힌다.



5. 거의 다 익어갈 때 토마토와 고추를 넣어서 한 번 더 익힌다.



6. 마지막으로 네팔 향신료인 머슬라와 고추를 넣어서 완성한다.



네팔 닭볶음 완성!

28번째 거리성탄예배

MERRY CHRISTMAS

올해도 변함없이 밤퍼의 앞마당에서는 추운 겨울 홀로 쓸쓸히 보내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다일공동체에서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28번째 거리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12월 25일 성탄절,

구유에 누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지만 문턱이 높아 갈 곳 없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온 거리에 주님 탄생을 기뻐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가슴 벅찬 뜨거운 예배를 드리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과 따뜻한 겨울나기 선물들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녹이며 모두가 기뻐하며 참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성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성탄예배에 함께하기 위해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개인, 가족, 친구, 후원단체의 자원봉사자들로 다양하게 지원하여 오셨고, 열정적인 봉사로 2,500여명의 어르신들이 아무 사고 없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 어느 때 보다 행복한 거리성탄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행복한 성탄절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을 함께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담아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온 이웃이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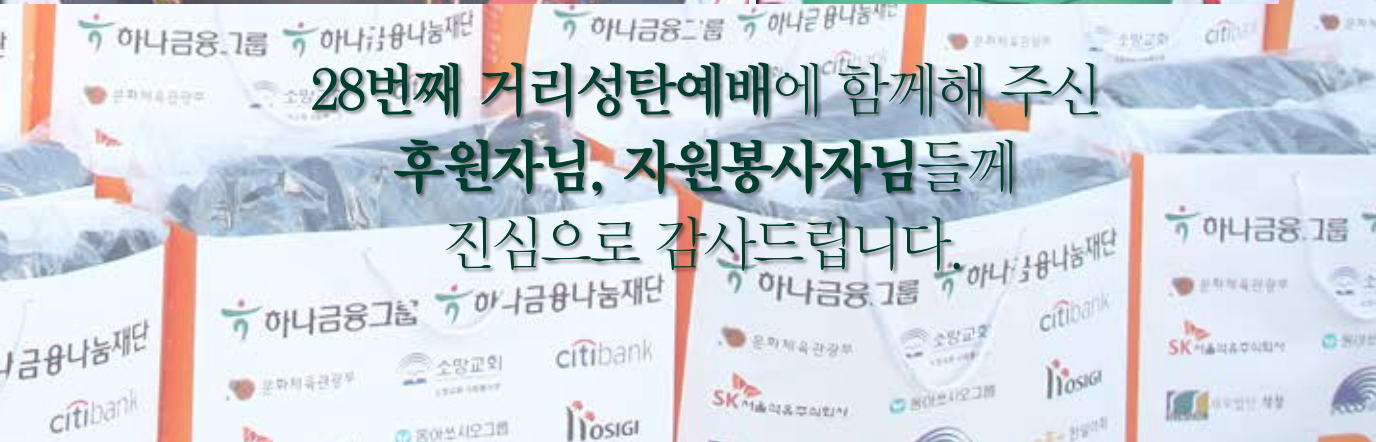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이 땅에 소외된 이 없을 때까지!







28번째 거리성탄예배에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 자원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사이야기

VOLUNTEER STORY

다일작은천국_송주민 ▼▼▼

다일작은천국_최현탁

캄보디아 다일공동체_정제성



다일의 새로운 발견

다일작은천국 ▼▼▼▼▼

재석성장학회 사무국장 송주민

개인적으로는 '다일'하면 떠오르는 것이 '청량리 밥퍼'였다. 나름대로 과거 몇 년간 청량리 밥퍼니눔운동본부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었고, 직간접적으로 업무와도 연관성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사회복지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일공동체의 여러 모습에 많이 놀랐던 것이 사실이다.

다일공동체의 '밥퍼'는 내가 느끼기에 현재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고, 청량리 밥퍼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무수한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심지어 미국대사와 외국의 유명 인사들까지 안 다녀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러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거쳤으며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도 제

대로 몰랐던 시기부터 진정한 사회복지를 실현했었고 지금도 눈이오나 비가오나 쉬지않고 노숙인, 행려자, 독거노인을 위해 매일 매일 밥을 퍼주는 사랑의 공간이다. 하지만 다일에는 밥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청량리 밥퍼센터에 밥을 먹으러 직접 올 수 있는 노숙인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일까? 오랜 노숙생활을 하다보면 정신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다고 한다. 불규칙한 식사, 불편한 잠자리, 과도한 음주 등으로 결핵, 폐렴 등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질병을 방치한 채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종내에는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혹 운 좋게 치료를 받더라도 퇴원 후에 갈 곳을 잃어 거리로 나서는 이들에게



냉정하고 차가운 거리에서의 안타까운 죽음은 다반사였을 것이다. 이처럼 철저히 버려지고 소외된 노숙인들을 끌어안고 보살펴주다가 설립된 것이 다일 작은천국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이 땅의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노숙인들이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 마지막 삶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 인격적으로 보호하여 영양 및 재활을 돕고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다일 작은천국의 존재 이유였다. 이곳에서는 노숙인 중에서도 더 이상 오갈데 없는 불치의 병을 얻은 이들에게 천사처럼 다가와 마지막 사랑을 베풀고 있었기에 단순히 다일공동체의 일부가 아닌 노숙인을 위한 독립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의 새로운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일 작은천국에서 사회복지실습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업무와 입소환자들의 돌봄업무, 건강관리업무, 배식지원업무, 환자이송업무, 놀이업무 등을 경험하였으며 방문자 안내, 면회객응대, 응급상황시 대처 등에 관해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가운데에서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배려심이다. 휴일임에도 손톱을 깎아주기로 한 입소환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잠시 출근한 직원을 보면서, 그리고 24시간 입소환자를 상대하는 고된 근무여건 속에서도 직원들 상호간에 내가 아닌 상대방을 먼저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배려의 모습을 보았다.



둘째,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다. 다일 작은천국의 1층 현관에는 28년 된 낡은 냄비와 석유공로가 놓여있는데, 이것은 1988년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바람과 비를 피하며 우리사회의 가장 외롭고 소외된 노숙자들에게 처음 라면을 끓여주었을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다일공동체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커졌지만 모든 임직원들은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현관을 지나며 당시의 모습과 마음을 되새긴다고 한다.

셋째, 노숙인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노숙인을 단순히 게으르고 나태한 무능력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그들을 사회부적응 장애의 일종으로 봐주어야 하며,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선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일 작은천국에서의 사회복지현장체험을 하며 진정한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용근 회장님과 다일공동체의 모든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dail**

나눔과 | 다일작은천국

섬김

쌍용양회 인사팀 차장 최현탁

▼▼▼▼▼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16장9절) 말씀에 따라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직장인으로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 실습(2개월 120시간)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된 실습은 다일 작은천국의 복지사분들이 나를 다일의 한 일원으로 또는 가족처럼 챙겨주셨기에 사회복지실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때의 인연으로 지금도 나눔과 섬김을 이어가고 있다.

실습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봉사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르신 한 분을 목욕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 때문인지 그분과 정이 들었다.

봉사자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되어 주말이면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하면서 말동무가 되어 드렸다. 어느 날, 짜장면을 사드렸더니 "지금까지 먹어 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말씀하셨다.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그분이 그토록 가고픈 고향을 함께 찾아 나섰는데 막연하게 경기도 안성이라는 말만 듣고 찾아간 고향은 어릴 적 고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되돌아와야만 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마음속에 간직해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해소되었는지 나에게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다음에 시간 될 때 함께 오시죠." 라고 웃으며 답하였다.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지 않아서 겪는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자세히', '오래' 보지 않아서 소외 받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도 다일 작은천국과 다일 밥퍼에는 사랑을 나누고 더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다일 밥퍼 벤치 페인트 칠하기 봉사활동



>> 쌍용양회 봉사자들과 함께한 다일 작은천국 병실 청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땅 캄보디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정제성

기쁨이있는교회 전도사 정제성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온 것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땅 캄보디아를 사랑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최근 7년 동안 열심히 사역만 했다. 나름 경험도 있고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공허'하기 시작했다.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밀려 들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왔다.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내가 잘 하고 있다는 '정당성'이 보이지 않았다. 일은 많고 사역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과연 이 일이 나의 길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삶과 사역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시점에 기쁨이 있는 교회에서 나를 캄보디아로 파견했고, 다일공동체에서 나를 받아주었다.

캄보디아에 와서 느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무 것도 없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또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곳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맡아서 할 때 나는 무능력한 존재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한계에 부딪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나의 철저한 무능력 앞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사랑 할 수도 없었던 내가 아이들을 사랑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치고 힘들었던 삶에 기쁨과 감사

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무능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아마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이 캄보디아 땅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캄보디아 땅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너무나 바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곳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많아지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길 소망한다.

DAIL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예배모습





캄보디아와 아이들

캄보디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운 일은 역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의 시간이다.

아이들과 1박 2일의 캠프를 하면서 서로 같이 자고 몸을 부딪히며 함께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은 절대 잊을 수 없다.

매주 예배 후에 모여서 성경공부도 하고 게임도하고 영화도보고 물놀이하던 것도 잊을 수 없다.

마지막 예배 후에 '찜라온'이라는 친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이 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삶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아이는 지금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읽는 아이로 변화되었다.

정말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이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주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받고 가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심에

캄보디아 아이들과 그리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감사를 표한다.



다지증 쏘페악, 변화 그 후...

손가락이 여섯개인 다지증
(일명 육손이)으로 아파하던
소년 쏘페악.
후원회원님들의 사랑으로 변
화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손가락이 여섯개라는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 늘 손을 숨겨야 했던 쏘페악은 지
리 피해자로 다리를 잃은 할아버지 계셔서 오머누악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부모님의 가정형편으로 수술은 꿈도 꾸질 못했습니다. 평생 다지증을 갖고 살
아야했던 쏘페악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한은행과 네이버 해피빈의 지
원으로 11월 15일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앰립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살기 때문에 수도인 프놈펜에 가기 위해 비행
기를 타는 것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고 수술시간이 코

앞으로 다가오니 온순했던 쏘페악도 불안한지 연신 엄마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쏘페악은 마취에서 깬 후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어꾼 브레아 예수!”(주님
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생활 속의 불편함으로, 아이들의 놀림거리로 숨기고만 살았던 여섯 손가락의 쏘페악. 그
러나 이제는 누구보다도 당당히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임을, 쏘페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갈 것임을
림었습니다.

다섯 손가락을 펼쳐보이며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게 된
예쁜 눈을 가진 쏘페악에게 귀한 선물을 해주신 해피
빈과 신한은행,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쏘페악이 더 멋진 미래를 꿈꾸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



해외 빈민촌 아동들을 지속적인 돌봄과 섬김으로 한 영혼
을 치유하고 가정과 마을을 변화시키는 Beautiful Change

Project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의 BCP사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다립니다. **DaIL**

후원문의 다일공동체 02-2212-8004



현 · 장 · 이 · 야 · 기

네팔 NEPAL



최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네팔의 지진과 봉쇄조치

2015년 4월 25일에 발생한 지진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네팔을 흔들어 놓았고, 네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아저 처 불리 처이녀”(오늘 있던 것들이 내일은 없다)라는 말과 같이 지진으로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비롯해서 거의 100만채 정도의 집들이 완파되거나 균열이 심하여 더 이상 쓸 수 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20일부터 시작된 인도로부터의 봉쇄

조치로 인하여 겪고 있는 생활고는 지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다른 지진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인도로부터의 봉쇄조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느끼면서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름이 없어서 버스의 지붕에 앉아서 다니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가스가 없어서 나무로 불을 때서 음식을 해먹고 있으니 그 불편함은 얼마나 크겠고, 모든 생필품의 가격이 배로 뛰고 있어 앞으로의 네팔이 어찌될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진으로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운데에도 질서를 지키며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기에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사재기 한다거나 비싸게 팔지 않아서 그나마 견디어 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봉쇄조치가 계



>> 인도의 봉쇄조치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네팔 사람들

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모두를 혼란에 빠지게 하지 않는 네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도가 네팔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도발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견디어내고 이겨내려는 네팔 사람들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네팔을 방문해서 지진 복구활동을 통해 네팔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의료캠프와 교육캠프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지치고 상한 네팔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네팔이 지진으로 어려우니 지금 네팔에 가는 것은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네팔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일부러라도 네팔을 찾아주셔서 트레킹을 하시며 네팔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지구촌의 한 가족임을 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네팔 다일공동체에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뷰티플 마인드와 함께 음악으로 네팔을 위로하고 치유하였습니다.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김용덕 의사선생님과 함께 의료캠프가 열렸습니다. 1월 4일부터 18일까지는 순천대학교 네품팀과 함께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활동을 합니다. 네팔과 함께 해주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DAIL**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 가스가 없어 나무에 불을 피워 음식을 하는 모습



필리핀 PHILLIPHINE



>> 5페소 샵에서 물건을 고르는 주민들과 아이들

한성희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Dail Donation Day

11월 28일 토요일 말리아 마을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마을주민들과 아이들이 참여하여 '5페소 샵'을 열었습니다. 신당장로교회 성도님 중 의료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다일을 위해 기꺼이 주신 옷들과 그동안 모아왔던 헌 옷들과 주변에 도움으로 모은 갖가지 잡화들을 펼치니 어지간한 전문점보다 더 훌륭하게 차려졌습니다.

5페소 샵에는 두가지 규칙을 정하였는데 물건을 두가지 이상 가져가지 않는 것과 한 번에 20명씩 입장하여 5분을 넘지 않게 고르는 규칙을 정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랑가이에서 4명의 가드를 보내주시는 등 마을 분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5천 페소의 후원금이 모여졌습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토요 어린이예배 헌금과 이번 5페소 샵을 통해 모은 후원금은 토요 어린이예배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구입하기에 부족하지만 올해 안에 구입하여 2016년부터는 좋은 화질의 화면을 보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DAIL**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아동결연 교복 배분

캄보디아에서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교복이 있어야만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복을 살 수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펜 센터와 시엠립 센터의 결연 아동들은 많은 후원자님들의 도움 덕분에 약 760명(2015년 10월 26일 기준)의 결연 아동들이 11월에 시작되는 신학기에 예쁜 새 교복을 입고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배분하기로 한 당일,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넓은 밥퍼 식당이, 쓰룩부억의 예배당이, 오머누악 한 아이의 집 앞 마당이 아이들로 빼곡히 메워졌습니다. 깨끗한 새 교복을 입고 등교 할 상상을 하니 아이들은 이미 들떠있었습니다.

교복을 배분 받은 몇몇 아이들은 성탄절에 후원자님께 보내드릴 카드를 쓰기도 했고, 새 교복으로 갈아입은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기쁨과 감사를 후원자님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성탄절을 벌써부터 준비하며 기대에 부푼 아이들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준비가 되셨나요?!

캄보디아 비전트립

11월 15일~19일, '최일도 목사와 함께하는 비전트립'이 캄보디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비전트립은 쓰룩부억(지뢰 피해자 마을) 이동 밥퍼, 365배 지원 감사축제 및 꿈퍼 학사 입주 감사예배 등 크고 작은 행사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톨레삽에서 있었던 선상 새벽 기도회에서는 은혜로

운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찬란한 일출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동결연을 통해 캄보디아 아이들을 가슴에 품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캄보디아를 찾으셔서 가슴 깊은 곳에 이 땅의 생명들을 품고 가신 비전트립팀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DaIL**



>> 후원회원님께 드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든 결연아동



>> 꿈퍼 학사 앞에서 다일 비전트립 단체 사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부원장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크리스마스가 주는 설레임과 떨림.. 모두가 기다리는 성탄절이지만,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베트남 다일공동체의 이웃을 위해 특별한 천사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POSCO ICT가 천사가 되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여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축제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연주를 위해 '선교교회 오보에팀'과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단원인 강유신 학생이 주축이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는 등 춤과 노래 그리고 장기자랑 순서가 진행될수록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공연의 열기가 식어갈 쯤 행사의 하이라이트, 선물 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 POSCO ICT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한 선물추첨 시간에는 모두가 숨죽여 자신의 행운을 빌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당첨이 된 건 아니지만 추첨의 모미는 당첨된 순간의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경품 자전거, 옷, 인형, 냄비 등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며, 선물에 당첨된 사람들은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 앞에서 선물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기쁨을 더하며 시상식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경품 추첨엔 당첨되지 못했지만 모두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선물과 함께 베

트남다일공동체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물이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데, 우리 인생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보았습니다. 흰 눈은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들 마음만큼은 흰 눈보다 더 밝게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해 주신 POSCO ICT와 '선교교회 오보에팀',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단원인 강유신학생과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후원해 주신 BETHEL VINA, A PLUS VINA, HAPPY COOK, MAX VINA, THANH CONG, VEGAS, LOTTERIA, 사이공드림교회, 밥퍼29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U.E.C (UNIVERSAL ENGLISH CENTER), 대한적십자 충북지사 흥덕지구 협의회 그리고 함께 밥을 준비하고 나누는 많은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의 성탄 축제를 기대하며, 한국의 많은 후원자와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기쁨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메리크리스마스! **DAJL**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선물추첨 및 전달



>>왼쪽부터 강유신, 윤신영, 한유정, 천세영님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호프클래스 2기 학생들의 졸업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호프클래스 2기가 드디어 12월 11일 역사적인 졸업을 합니다. 35명의 아동들 가운데 29명이 졸업하고 일반 공립학교로 편입을 하고, 6명은 1년 더 호프클래스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9명의 졸업생 가운데 20명이 멤버에 입학하고, 9명은 학습능력에 따라 1,2학년에서 각각 편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일반공립학교 편입을 위해 인근 공립학교에 가서 학습능력 테스트를 받고 편입학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초등학교는 7년 과정인데 반드시 2,4학년을 마치면 국가시험을 치러 패스해야 3,5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호프클래스 아동 20명이 입학하는 멤버는 5학년 진급시험을 위한 1년 과정으로 이 과정을 거치고 시험에 패스하면 5학년에 진급하게 됩니다. 우리 아동들 20명은 아직 5학년 수준은 안되기에 멤버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학교 교정



지난 3월 호프클래스 2기를 시작할 때만해도 1,2,3,4도 잘 못쓰고, A,B,C도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는 영어로 찬양도 하고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스와힐리어 책을 큰소리로 읽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철부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 감사한 것은 호프클래스 1기 졸업생 가운데 일반초등학교에 편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던 조이스는 21명 가운데 14등을, 피터는 다른 학교에서 21명 가운데 27등을 했습니다. 이 두 명의 호프클래스 1기 졸업생들이 2기 후배들의 좋은 귀감이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참 감사합니다!

dail



>> 편입학 시험을 보는 아이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755-154-246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중다일의 새 가족

다일 어린이집에 두 명의 새 가족이 왔습니다. 한명 김문녀(조선족, 여, 13세)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2살에 부모님과 헤어져 여러 곳을 다니다가 시 민정국을 통해 다일가족이 되었습니다. 밝고 총명하며 불임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 한명의 아들은 여관에 아버지가 두고 간 뒤 소식이 없어 현재 일시보호 중입니다. 이 아들은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언어장애가 있어 현재 이름도 민족도 알 수 없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이 왔다고 챙겨주고 놀아주며 신이 나서 집 분위기가 한층 생기가 듭니다.



>> 중국 다일공동체의 새가족 어린이들

사랑해요 형님들

중국의 명절 국경절을 맞아 명절 전후로 외지의 형님, 언니들이 다녀갔습니다. 베이징의 고미나 부부와 지아오허의 박려나, 한국의 리나가 동생들을 위해 선물을 가득 안고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몇 년만에 방문한 캄보디아의 리일, 조홍광 부부는 동생들과 따듯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지는 못했지만 리일 부부편에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봉사중인 한해연, 한연이도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모두들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동생들 내복이라도 사주라며 봉투를 내밀

며.. 적어서 미안하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적다니..." 잘 성장해 결혼하여 남편을 데려오고 바쁜 일정 중에 10시간씩 기차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찾아와주는 그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한 함을 몰라서 하는 말이겠지요...고맙고, 고맙습니다!



>> 중다일을 방문한 리일부부

생명주시니 감사!

지난달은 유난히 생일이 많았습니다! 전지향, 리명호, 박진우, 박진석, 김현희, 쉬후이젠 모두 6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생일자가 많아도 대가족 중다일은 되도록이면 생일 당일에 개인별로 파티를 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릴적 마냥 즐겁던 생일날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특수한 환경과 남다른 성장과정에 대한 의문들을 스스로 던지며 날아주시는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다일 가족들은 생명주심에 생명있음에 감사하며 힘을 내라고 온 맘 다해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주니성르콰일레(생일 축하합니다) **DaIL**



>> 중다일 생일파티

중국 다일공동체 ☎ +86-433-753-8004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임정순 다일 작은천국 원장

입소자 어르신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천국

지난 11월 27일에 작은천국 입소자 어르신들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묵안리 평화의 마을에서 삼색두부 만들기를 체험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직원들은 묵안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눈으로 즐기며 유기농 콩을 이용한 삼색두부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색색의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웰빙 음식인 삼색두부와 한겨울에 맛볼 수 있는 군고구마를 구워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는 “내가 만든 음식들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라는 말씀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소자분들 뿐만

아니라 준비한 모든 다일 스태프들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쿨렐레와 함께하는 작은천국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에 제안했던 ‘우쿨렐레와 함께하는 작은천국’ 프로그램이 1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작은 음악회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장난감 기타처럼 생긴 우쿨렐레를 소중히 품에 안고 한줄 한줄 손가락으로 집어가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입소자 어르신들의 솜씨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 강사님도 깜짝 놀라는 시간이 매주 입소자분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입소자분들의 손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작은 천국이 진정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2015년도, 그리고 2016년 새해에도 다일 작은천국 직원들이 열심히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AIL**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 02-2213-8004



>> 두부만들기 체험 중인 작은천국 입소자 어르신들



>>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는 입소자 어르신들

밥퍼 BABFOR

이지현 밥퍼나눔운동본부 본부장

오병이어 잔치에 초대합니다!

_ 서울메트로 신답승무사무소 김동열 집사(글쓴이)

청량리 588. 보통 사람들은 그곳을 집창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사가 직업인 저는 열차를 운행하면서 청량리 쌍굴 다리를 지날 때마다 언뜻 보이는 화려한 불빛 때문에 그곳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가 되면서 어디선가 청량리 쌍굴 다리에 찾아가면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최일도 목사님께서 제가 다니는 교회 저녁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오실 때도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교회에서 하는 사역으로만 생각하고 최일도 목사님은 나와는 다른 특별한 분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사회 공헌 봉사활동을 권장해서 봉사할 곳을 알아보고 있었던 때 '청량리 밥퍼'가 다시 한 번 제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청량리에 봉사의 자리가 있다고 하니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그 이후 2009년 3월부터 봉사가 시작되었고, 서울메트로 연합회에서는 1년에 2회, 신답승무사업소에

서는 매년 총 24회 정도 꾸준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밥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봉사입니다. 매주 봉사를 하고 있지만 오병이어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지금도 매번 가슴이 벅차올라 봉사의 자리로 가곤 합니다. 제가 만난 '밥퍼'의 봉사자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또한 밥퍼 본부장님과 주방장님을 비롯한 스텝분들의 헌신은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메트로 선교회 회원이자 선임 봉사자인 저는 매달 봉사 날이 되면 갈 수 있는 인원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원들을 독려하여 봉사를 통해 나눔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직원들의 가슴에 남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메트로 신답승무사무소는 지하철 1호선을 운행하는 기관사와 승무원 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밤에도 지하철을 운행해야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밥퍼 봉사 날에는 5~10명의 직원들이 꼭 시간을 내어 봉사에 동참합니다. 1년에 2번 직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쌀 50가마를 기부하며 사무실 커피 자판기 앞에 '커피 한 잔의 사랑'이라는 슬로건으로 동전을 모아 연말이 되면 모인 동전을 기부합니다. 또한 서울메트로 선교회 장로님께서 퇴직 기념으로 캄보디아에 배를 기증하는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눔 활동을 하면서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봉사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올해에도 캄보디아에 배를 기증하기 위해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4번째 배를 기증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시작했지만 어느덧 나눔에 동참한 시간이 600회, 약 3000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밥퍼의 오병이어 잔치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dajil

밥퍼나눔운동본부 ☎ 02-2214-0365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봉사소감 한마디



우리 신담승무사업소 직원들이 매월 밥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는 직원들은 마음이 어떨까? 궁금해서 저도 함께 밥퍼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바쁘게, 맘나게 일을 마치니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아!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풍요로운 부자이구나! 우리 직원들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많구나!' 덕분에 저희 서울메트로 신담승무사업소는 이 겨울에도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남을 배려하면 풍요로운 부자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달우(신담승무사업소장)



밥퍼 봉사를 하며 어르신분들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메트로의 밥퍼 봉사는 승무원들이 업무시간이 아닌 개인휴일에 봉사활동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상영(기관사)



밥과 국을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를 보조하는 것이 손도 아프고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좋았고,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봉사자분들을

보고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이경훈(승무원)



저는 밥퍼에 봉사를 다녀오면 왠지 착한 일을 하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몇 가를 받고 하는 노동이 아니기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느낌입니다. 함께하는 봉사자들의 선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져서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밥퍼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리는데 작게나마 저의 노동이 보탬이 되어 기쁩니다.

| 박태규(승무원)



'밥퍼' 이야기를 뉴스나 주위 사람한테 듣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직원이 소개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삶의 질을 높이지게 했습니다.

| 박덕중(승무원)



저의 작은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밥퍼 봉사가 어느새 5년이 되었습니다. 밥퍼는 무엇보다도 독거노인분들과 노숙자분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 그분들과의 벽을 깨고 함께 대화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 강성균(승무원)



밥퍼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내는 전쟁 같은 사랑이 이뤄지는 곳. 몇 해 전부터 이어진 밥퍼와의 인연에 저에게 맡겨진 봉사의 역할만 보였지만, 이제는 밥퍼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 곳은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이 일상이 되고, 그 치열한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는 곳입니다. 아픔이 치유되고 부족함이 넉넉해지는 사랑의 화수분같은 밥퍼를 사랑합니다.

| 김윤기(기관사)

미주 U.S.A



김고은 미주 다일공동체

할렐루야! 메리크리스마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미주 다일공동체가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새로운 성탄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한 미국교회 (cross point church)와 협력하여 빨강색으로 제작한 사랑의 Goody bag에 성탄절용 치킨을 넣어 전달하였습니다. Cross point church는 미주 다일공동체에서 파송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의 이종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이며 선교사님을 통하여 2년 전부터 미주 다일이 함께 협력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ross point church는 지역사회에서 큰 미국침례교이며 오래 전부터 미주 다일 오피스가 위치한 Gwinnett county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food pantry service를 통하여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 미주 다일공동체도 이 귀한 사역에 일조하고자 식료품비를 전달했으며 미주 다일 스텝들과 이종호 선교사님이 직접 봉사에 참여하여 인근 마트에서 월 2회 후원 받은 식료품을 cross point church로 배달해 주는 봉사도 함께 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특별히 더욱 지역 이웃들을 섬기고자 이날 행사에 방문하신 400여 가정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미주 다일공동체가 아주 큰 치킨을 한 마리씩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날 행사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자 시간

의 십일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봉사에 참여해주신 유재준 대외협력 이사님, 연합장로교회 김철호 장로님, 미주 벗님과 미주 다일 청년 2세 봉사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봉사를 할 때마다 식료품을 담아 전달하는 카트(cart)가 부족하여 물품공급 시간도 길어지고 추운 날씨에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이웃들이 많다는 점이 바라보기 안타까웠습니다. 미주 다일에서 모금을 하여 새로운 카트를 몇 대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1천불이면 새 카트(cart)를 몇 대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사랑의 바구니 (cart)를 구매하는데 함께 해 주실 천사가 있으시면 미주 다일공동체로 연락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770-813-0899 김고은 실장)

pay to: dail community of usa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미주 다일공동체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힘써오던 제3세계 해외원조 사역뿐 아니라 인근의 지역 사회와 이웃들을 지금보다 더욱 더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섬김과 나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d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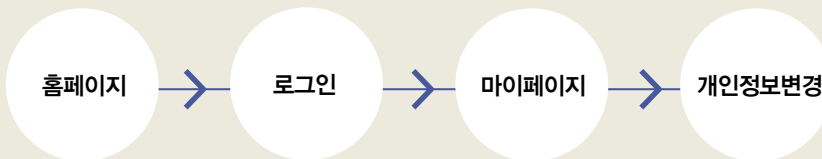


기부금 영수증

2015년에도 다일공동체와 함께해 주신
후원가족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되는 회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주세요.
- >> 기부금 영수증이 올바른 주소지로 발급되도록 주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일공동체 홈페이지(www.dail.org)에서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하신 후 후원하신 내역 확인이 되지 않으실 경우 다일복지재단 후원관리실 02-2212-8004로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다일복지재단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다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www.dail.org



>> 우편수령하기

2016년 1월 중순 경,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후원금액 합산기준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는 12월 17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5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지리로 납부하시는 경우는 12월 24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5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지은이 : Sam Levenson

* 오드리 햅번이 1992년 크리스마스때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유명해진 시

>>> 당신이 두 손을 가졌다는 것은...

매력적인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따뜻한 말들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스런 눈빛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가냘프고 야윈 얼굴이 되려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줘서 였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그 머리카락을 그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라.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걸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반환할 줄도 알아야 하며,
새롭게 개선할 줄도 알아야 하며,
개화할 줄도 알아야 하며,

그리고 도움을 행할 줄도 알아야 한다.
도움을 행할 줄...
결코 누군가에게 한적이 없는.

기억하라, 만약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을 필요로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행하는 도움의 팔 끝에서 당신의 도움을 찾을 것이다.

당신이 좀 더 컸을 때,
당신은 당신이 두 손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는 당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손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손이라는 것을...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I . am . a . happy . volunteer

밥 퍼



샘물고등학교 | 수능을 마친 고3 샘물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주 동안 봉사하러 왔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앞섰겠지만, 나눔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씩씩하고 밝은 인사로 어르신들이 온 얼굴에 함박웃음을 짓고 돌아가셨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밥퍼로 꼭 봉사를 오 겠다는 약속을 하며 지속적인 봉사를 다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대학생이 되어 다시 만나요!



아세나글로벌소싱 |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할 때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세나글로벌소싱 가족들이 밥퍼를 방문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밥상공동체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섬기시는 모습에 감동하였더니,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는 모습이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밥퍼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가시던 류미경 사장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더니 '직원들 커피 값이었지만, 어르신들에게 쓰이는 것이 더 좋겠다.'라며 10만원을 모금함에 나눠 주시고 가셨습니다. 거듭 감동이 연속되는 하루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이창재 검사장님을 비롯한 북부지검 가족들이 나눔과 섬김의 현장 밥퍼로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검사님들이라 하여 조금은 경직되고 무거운 느낌 인줄 알았지만 밥상공동체 어르신들에게 연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 낮은 곳,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검사님들이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쌀 800kg과 굴도 하나씩 나누어주시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랑의 손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KIST가족들이 밥퍼를 찾아왔습니다. 최원국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장님은 밥상공동체 어르신들께 오히려 더 큰 사랑과 감동을 받고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며 밥퍼 식구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특히 KIST의 한 연구원 봉사자님은 열심히 봉사 후에 먹는 밥퍼의 밥은 꿀맛이라며, '맛집 탐방 프루에 제보해도 손색이 없다'는 말씀에 모두가 기분 좋은 웃음으로 밥퍼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KIST가 최고야!!! 밥퍼가 최고야!!!"

베트남



사이공드림교회 | 사이공드림교회 분들이 다녀간 밥퍼는 사랑과 나눔, 섬김의 향기가 진하게 묻어납니다. 밥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사이공드림교회는 넓은 엄마의 품처럼 푸근합니다. 온 세상이 이와 같은 마음이라면 더욱 살맛나는 훈훈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퍼29팀 |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2015년 9월 29일 밥퍼 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매월 29일 밥퍼 봉사 및 후원을 해주시는 팀이 있습니다. '밥퍼 29팀'이 바로 그 행복한 자원봉사 팀입니다. 봉사를 오실 때마다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기쁜 얼굴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시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곤 합니다. 나눔 활동을 실천해주시는 밥퍼29팀이 최고입니다!

캄보디아



서란님 | 한국의 예향교회에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향해 날아온 서란 자매를 소개합니다! 서란 자매는 간호사로 올해 아동결연을 시작한 '간 까요'를 만나고 캄보디아를 섬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밥퍼 및 의료지원 사역으로 아이들을 돕고 의료지원이 부족한 지뢰피해자마을, 쓰루뿌억 마을에서 이동진료로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사진으로만 봐오던 아이 '간 까요'를 직접 만난 뒤 앞으로도 간 까요가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자라기를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휴가까지도 참사랑의 실천을 위해 아낌없이 내주는 서란 자매의 따스한 섬김이 있어 캄다일의 10월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데오스학교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자라나는 희망, 꿈퍼 학사를 지원해주신 데오스학교에서 김영롱 선생님과 이영수 학생이 2주 동안 아이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편하게 지내던 한국의 환경에서 벗어나 조금은 불편하고 또 낯선 환경에서의 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기색 없이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또한 꿈퍼의 아이들과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꿈퍼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든든한 물질적·영적 후원자가 되어주신 데오스학교와 김영롱 선생님 그리고 이영수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p>신규후원회원 15.10.15~12.15</p>	<p>(주)두드림크리에이티브, (주)살롱건설, (주)쌍크폴, (주)이림테크, 153건설, AJ렌터카 주식회사, YOON JOSEPH, 강경호, 강순옥, 고재만, 고태호, 공순자, 구연민, 권선주, 권임숙, 권종원, 권혁진, 기후환경본부대기관, 김경숙, 김규혁, 김기호, 김단우, 김동현, 김두옥, 김만규, 김만규, 김명숙, 김미경, 김병숙, 김상권, 김상우, 김상준, 김선미, 김성범, 김성진, 김수환, 김순귀, 김승남, 김영미, 김영이, 김옥진, 김용환, 김유섭(노사모), 김윤기, 김윤순, 김은경, 김은경, 김은아, 김인수, 김정필, 김종원, 김중환, 김지성(김경훈), 김지호(김경훈), 김진관, 김진성, 김진한, 김태순, 김하라, 김학수, 김혁, 김현아, 김현진, 김혜영, 김혜원, 김혜윤, 김호민, 김호진, 김홍권, 김화필, 김효진, 김희경, 김희일, 뉴스엔매거진 파워코리아, 다일여선교회, 더봄컴퍼니, 라임나무치과, 류영선, 류인민, 명동교회제3여전도회, 명은희, 문희선, 미주감리목회자, 민영미, 민중우, 박격포(저금통), 박기삼, 박동산, 박미영, 박미화, 박상민, 박선홍, 박성윤, 박승규, 박은영, 박은희, 박재범, 박재혁, 박종오, 박지현, 박헌수, 방인성(강석문), 배정숙, 배혜림, 배혜인, 백순중, 백철홍, 변선옥, 변진여, 비전트립, 사동초등학교, 삼성서울병원조이너스봉사, 서완철(아이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서울시교육연수원, 서윤자, 서정숙(김동성), 선교비, 선우ENG(주), 설영환, 성숙, 소망교회5남선교회, 소지학, 손미선, 손수정(서성현), 손일레이지은박창희, 송정규, 송주민, 신병훈, 신아영, 신재경, 신재의, 신주은, 안경순, 안영주, 양승노, 양종천, 엄계화, 엄수지, 엄재규, 에스씨엘, 여영숙, 여자중앙교회, 염대규, 영흥도내동교회사회봉사부, 예은순복음교회, 오채원, 우인숙, 유다운, 유수명, 유승완, 유정희, 유현미, 윤봉귀, 윤재영, 윤정연, 이광현, 이금잔디, 이나영, 이동기(정혜자), 이동현, 이미애, 이상삼, 이상용, 이상행, 이수진, 이수진, 이영우(저금통), 이용금, 이용수, 이우규, 이원아, 이윤희, 이은지, 이정복, 이정배, 이정윤, 이정철, 이종덕, 이준호, 이지연, 이진희, 이태형, 이파리, 이하윤, 이현옥(방한복), 이해경, 이화용, 이희준, 임대섭, 임철욱, 임현진, 임희자, 장로회총회대신, 장민영, 장준태, 전금자, 전우명, 전은주, 정경희, 정사라, 정성태, 정소영(류현열), 정수현, 정영숙, 정우선, 정우전, 정은영, 정인숙(박상열), 조고예은, 조명호, 조미진, 조민정, 조상원, 조상현, 조성원, 조연홍, 조영민, 조윤경, 조은주, 조준영, 조진희, 조창식, 종운태, 주식회사 닥터스, 주식회사 애드타임컴퍼니, 지미현, 지순식, 지연중학지학, 진주보건대학교, 진천순, 차경희, 채수송, 채정옥, 청주성결교연합집회, 최경의, 최동찬, 최성일, 최승희, 최유리, 최은미, 최정미, 최지혜, 최태기, 최혜경, 캄보디아배2척후원비, 쿠샬 아트레이(백수진), 푸른산인재인, 한국IBM, 허원경, 현정아, 혈액관리본부, 호프스쿨, 창원, 홍금옥, 홍순찬, 홍윤주, 홍익교회업종용, 홍종욱, 홍창식, 황경미, 황빛나, 황성희, 황정택</p>
<p>밥퍼나눔 운동본부 15.10.15~12.15</p>	<p>후원물품 / AJ렌터카(쌀 200kg), 경흥농장(굴 50박스), 김다나 (초코파이 960개), 김성동(쌀 400kg), 김순례(배추김치·갓김치 등 10kg), 나눔의손길 (빵·양말·굴 700개), 농협-서울우유(김치 40kg), 동아쏘시오홀딩스 (밴드,비타민,박카스 1000개씩), 동의보쌈(김치 80kg), 두산정보통신(쌀 200kg), 드림재단(빵 5,200개), 모두함께재단&모자이크교회(두유 1,680개), 무명(도루묵 2박스), 무명 (빵·생수 100개), 무명(쌀 80kg), 문형숙(쌀 240kg), 뷰티플마인드(쌀 220kg), 삼오종합식품(쌈장 1통), 샘물고등학교 3학년(요구르트 1,000개), 서울메트로 신담승무사업소(쌀 490kg), 서울우유 (우유 2,160개, 콜랜드 1450개), 성경식품(김·파래·자반 외 100묵음), 소망교회제6남선교회(쌀 400kg), 애드타임컴퍼니(물티슈35박스), 양은희(목도리 2박스), 오현주(쌀 180kg), 윙둥둥(가정집 쌀·현미 100kg), 이문규(쌀 400kg), 이승숙(김치 6kg), 이용금(달랑무 3통), 이찬원(쌀·김치 4통), (주)이림테크 (쌀 250kg, 라면 80개), 케논코리아(쌀 240kg), 크록스코리아(신발 45족), 티브로드 (김치 10박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수세미 1박스), 한촌설령탕(삼계탕·설령탕·육수·김치 1000인분), 호식이두마리 치킨(쌀 900포), 홈플러스 생활레저부문(장화 45켤레), 홈플러스(쌀 120kg)</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15.10.15~12.15</p>	<p>후원금 / 부영상회, 씨제이프레시웨이, 조용근 후원물품 / (주)쌍용양회(청소도구, 생필품), (주)씨엠비동서방송(케이블티브수신료-년간), (주)티브로드대문방송(김치), 경희여고녹화팀(수건외), 남연옥(신디), 배화여대how팀(다과외 간식),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생필품외), 소망교회(추수감사예배헌물), 신한카드(배추김치), 연세의료원치과대학병원(기부금 및 의약품)</p>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15.10.15~12.15</p>	<p>후원금 / KHC 여행팀, SGI, 강사론, 국회사무처, 그린투어 여행팀, 근로복지공단, 김광숙, 김규혁, 김남룡, 김명완, 김정숙/유성수, 김주희/김승희/김리희, 꾸러기모임, 고평태학교, 나돌섬선교회, 다일비전트립, 대구사회복지관협회, 대한적십자 서울지사협회, 마이키, 밀양남부교회, 박선화, 서란, 소망교회 광진2교구2구역, 순천중앙교회 선교부, 아시아아프리카희망기구, 엄주현, 울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유니세프 봉사팀, 이예린, 이지수/이희수, 이현구, 임균태, 임대근, 충북도립대학 봉사단, 코리아트래블 여행팀, 태화국제고등학교, 톤레삼 카누, 한국교원대학교, 호산나교회, 흥탁광, 황혜진</p> <p>후원물품 / 국립중앙청소년수련회, 그린투어 여행팀, 근로복지공단, 나돌섬선교회, 다일비전트립, 대원국제중학교,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지부, 대한적십자 서울지사협의회, 서란, 엠오에스 충청, 유니세프 봉사팀, 충북사회복지관협회, 코리아트래블 여행팀, 태화국제고등학교, 한수원 시니어봉사단</p>
<p>중국 다일공동체 15.10.15~12.15</p>	<p>후원금 / 고미나(베이징), 김성재(Obey & Praise), 리나, 리일+조홍광(캄보디아), 민경식(북경), 무명(아동친척), 중국 인수보험공사, 영안 농장경로원, 훈춘 계몽학교, 양철호(한인교회), 허순규, 한해연+한연(캄보디아)</p> <p>후원물품 / 권윤경(월 4회 간식지원), 두만강식품유한공사(떡1B), 박려나(과자, 음료), 에스더모임(김장김치 30포기), 일심식품유한공사(빵1B, 김치), 영광제빵(빵1B), 애심빵집(케익), 장단(사과2B), 포스코현대국제물류유한공사-법인장 연제성(우유10B, 초코파이10B외), 훈춘피아노(갈비, 갈치1B, 빵)</p>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15.10.15~12.15</p>	<p>후원금 / 이순옥, 이화용+송미아, 찰스브레웨어스, 탄자니아KOTRA, 탄자니아한인교회,</p>
<p>베트남 다일공동체 15.10.15~12.15</p>	<p>후원금 / DAEWOO INTERNATIONAL, LOTTERIA, MAX VINA, NAHAL, ORION, POSCO P&S, POSCO VIETNAM, THANH CONG, U.E.C(김경중 원장), VEGAS, 기업은행, 김영희, 김일기(김미덕), 대장금, 모금함,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신덕헌, 아산상선, 참조은광성교회, 최동현, 최동주, 장순희, 최규중</p> <p>후원물품 / POSCO ICT(쌀), POSCO VIETNAM(빵), Sweet Factory(빵), THANH CONG(바나나), VEGAS(라면, 우유), 고갑순(냄비),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선의복지재단(카스텔라), 통큰소(닭)</p>
<p>필리핀 다일공동체 15.10.15~12.15</p>	<p>후원금 / 김영주목사가정(어린이 간식), 박성민목사부부(구충제), 박성룡목사(어린이간식) 후원물품 / 김인자, 김경미, 김경숙, 류영수, 류현치, 신당중앙교회 은퇴장로회, 신순자, 영산대학교평생교육원생, 오명옥, 이금자, 장선희, 장정옥, 최순례</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외 아동과 결연을 하시면 결연 아동의 소개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위한 캠페인입니다.(36,500원, 365,000원, 3,650,000원)	
화해의 밥 운동	화해의 밥 나누기 캠페인은 작은 갈등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화해의 밥을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	
다일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0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공동체)	나눔 계좌	외환은행 131-22-00800-7 국민은행 010-01-0619-487
	만원의 행복	외환은행 131-22-00892-9 하나은행 158-910001-02004
	생쌀이 운동(Rice Pot Relay)	국민은행 467737-01-002291 (예금주 : 다일공동체 생쌀이운동)
	화해의 밥 운동	KEB하나 158-910009-61204 국민은행 467701-01-275676 다일공동체(B.P.M)
	밥퍼나눔운동본부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설곡산다일공동체	국민은행 010901-04-064419
	다일천사병원	국민은행 010-01-0975-871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다일작은천국	국민은행 467701-01-224504
	다일평화의 마을	국민은행 010-01-0619-487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미주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053115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니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천사병원,다일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Plots No. 192 at Jangwani Beach, Kinondoni Muniioality,
Dar_es_salaam city Tanzania
Tel. +255-755-154-246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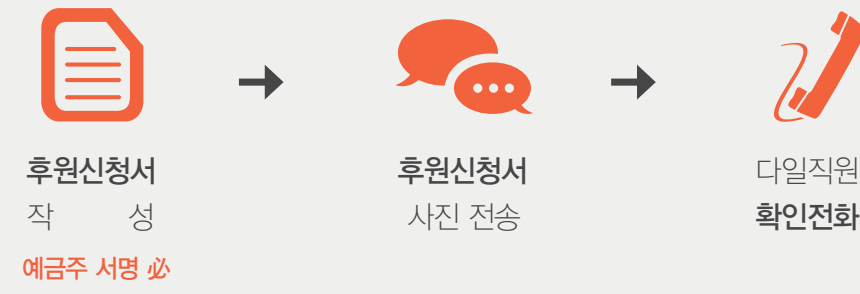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일공동체 카카오톡을 맺으시면 더욱 간편하게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만원의 행복 일대일아동결연 기타
월 1만원 _____ 구좌 월 3만원 _____ 명 월 _____ 원

일시후원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다일레거시10(유산기부) 기타 _____ 원

재능기부

- 영문 통/번역(한(-)영) 디자인/영상 기타 _____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연락처 _____ SMS수신동의 이메일 _____ Email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수신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후원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작성하신 후원신청서의 사진을 다일공동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일공동체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1. ID로 등록: dailwf
2. QR코드로 등록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보내시는 분

□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14.02.14 ~ 2016.02.13
동대문우체국승인 제40242호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복지재단 6층
후원안내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아름다운 세상찾기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안내와
우울증, 중독, 가출, 자살, 가정불화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일정안내

-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169기 1월 5~9일(4박 5일)
170기 2월 2~6일(4박 5일)
171기 3월 15~19일(4박 5일)
-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48기 1월 19~23일(4박 5일)
49기 2월 16~20일(4박 5일)
-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20기 1월 11~16일(5박 6일)
21기 2월 8~13일(5박 6일)

등록안내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입금계좌

전화 031 585 2004 / 010 6375 8004
홈페이지 www.dail.org
계좌 농협 355-0022-4654-93(다일공동체)



주일공동예배: 1부(오전 8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산 52번지
Tel. 031 585 2004 | 원장 이모세 형제 010 6375 8004
네비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밥퍼에서는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1988년 11월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 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채플에 초대합니다.

주말(금, 토)에 저희 공동체가족들과 1박이나 2박 하기 원하는 분들(70여명)을
신청 순서에 따라 아름다운 대자연과 함께 정중하고 감동있게 모실 수 있습니다.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겨울에

최일도 목사 및 다일공동체 가족 일동 올림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이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합니다.

